

ROE 프로그램 개요

- 대상: K-8학년 대상
 - 1996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치원 교사였던 메리 고든(Mary Gordon)이 유치원에서 시작, 2000년 동명의 비영리 단체 조직, 캐나다 전역으로 프로그램을 확장
 - 아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1년 과정의 프로그램
 - 비전: 공감능력 발달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평화로운 시민사회를 만들기
 - 부모와 아기가 학급을 9회 방문, 프로그램 시작 시 아기는 2~4개월
 - 인간관계의 여섯 요소를 활용: 뇌과학, 기질, 애착, 감성, 진실한 대화, 사회적 포용
 - ROE 강사가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지도
 - 프로그램에서는 아기가 ‘교사’임, 학생들은 아기를 통해
 - : 아기의 성장과 변화 관찰
 - : 부모와 아기와의 관계, 부모가 아기의 정서와 요구에 반응하는 방법 관찰
 - : 아기의 기질과 자신의 기질, 친구의 기질 관찰
 - : 아기의 안전, 자신의 행복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해
 - : 아기의 입장과 감정 이해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
 - >자신, 타인 및 사회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폭력과 불의에 도전할 수 있게 됨.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
 - 프로그램의 효과: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감소, 공감 능력과 학습 능력 향상
 - 교사와 학부모, 가정의 변화
 - 실시 지역: 캐나다, 뉴질랜드, 맨섬, 북아일랜드, 아일랜드공화국, 스코틀랜드, 미국
 - 자료
 - 웹사이트: www.rootsofempathy.org
 - 서적: Gordon, M. (2005) *Roots of empathy: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The Experiment. (2010 한국에서 번역서 출간)
 - 국내 소개 예: ytn 스페셜 나쁜 아이들 6부(2010. 12. 17방송 http://www.ytn.co.kr/_pn/)
- * SOE(Seeds of Empathy): 2005년부터 시작, 3-5세 대상, 사회정서능력과 초기 문해 능력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아기는 10회 방문(Family Guide 지도), 문해 활동은 두 명의 Literacy Coach가 도움
웹사이트: www.seedsofempathy.org

공감의 뿌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

1. 공감의 의미

- 의미: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모든 사람은 공감 능력을 타고남.
타고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영향
공감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공감을 경험함으로써 터득됨.
- 중요성: 교실, 지역사회, 세상에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토대

2. 공감의 뿌리 교육과정의 핵심 주제

- ① 가족의 중요성
가족 안에서 공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가족의 구조보다 구성원 간의 관계가 중요함.
- ② 어린이: 편견 없이 사랑하고 신뢰와 포용력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
- ③ 인간의 보편적 요구는 사랑과 소속감
- ④ 공교육의 가치: 사회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
공적으로 쓸모 있고 사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표
- ⑤ 예술의 힘: 언어의 한계를 넘어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

3. 공감의 뿌리 교육과정

- ‘관계’를 시민사회의 핵심으로 여김.
부모와 아기의 애착관계는 공감적인 인간관계의 모델
시민사회: 교실,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

엄마가 아기의 기분, 감정, 또 주변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그들이
빚어내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목격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을 때 얼마
나 세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된다. 인간으로 성장하는 능력,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맺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최초의
관계에서 발달한다(pp.76~77).
- 초대할 가족 및 아기의 선정: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줄만한 가족
다양한 문화 집단 반영, 아빠도 참여
- 왜 아기가 교사인가?
 - 신체, 사회, 감정, 지능, 도덕, 영성 등의 발달을 보여줌.
 - 사랑스러움, 편향된 시각을 지니지 않음, 위협적이지 않음.

*Gordon, Mary (2010). **공감의 뿌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 (문희경 역, 심상달 감수). 서울: 산티.

아기는 사랑스러운데다 위협적이지도 않아서 아무리 말이 없거나 공격적이거나 외떨어져 있거나 화가 난 아이들일지라도 아기는 소통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다(p.76).

두 번이나 유급당한 8학년에 다니는... 대련은 네 살 되던 해에 눈앞에서 엄마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았고...양부모 집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대련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려는 듯... 머리는 정수리 쪽에 한 묶음 정도만 남기고 완전히 밀어버렸고 뒤통수에는 문신까지 새겼다.

그날... 엄마는 포대기를 매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저쪽에서 대련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안아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잠시 걱정하는 듯했지만 곧 아기를 내주었다. ...대련은 아기를 안은 채 교실 구석으로 가서 한동안 아기를 열려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기 엄마와 '공감의 뿌리' 강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물었다.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나요?"

공감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아기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대련은 사랑받지 못하던 어린 시절의 자기와는 다른 부모가 되는 모습을 꿈꾸기 시작했다. 아기는 인간애를 발견할 기회를 주었고, 어린 소년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 (pp.25-26)

- 학생들 발달 수준을 반영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 유치원(K), 1~3학년, 4~6학년, 7~8학년
- 진행: 유자격 강사가 함께 방문하여 지도
 - 강사는 가족의 방문 전과 후에도 방문 => 총 27회의 학급 방문이 이루어짐.
 - 사례비는 지역사회 단체들이 부담
 - 강사는 대개 단체 직원, '공감의 뿌리'연구소의 훈련 및 멘토 프로그램 이수
 - '공감의 뿌리' 과정을 마친 후에도 담임교사가 정규수업으로 연장
- 9가지 주제, 매달 3회씩 한 가지 주제를 다룸
 - 방문 수업 1주일 전(준비시간): 주제 소개, 주제를 아기의 발달단계와 연결하며 아기가 교실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함.
 - 방문 수업 다음 주: 방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론하고 정리, 아기와 부모에게 선물할 그림, 노래, 연극 등을 준비
- 정규 교과과정과 연결
 - 사회, 미술, 과학, 수학, 토론 및 글쓰기, 감정과 이야기책, 음악
- 프로그램의 종결: 아기에게 바라는 소망 적기
 -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이 가득한 소망임.
 - 학생 자신에게 힘들었던 경험을 아기가 경험하지 않도록 바람.
- 공감 능력 발달에 필요한 인간관계의 여섯 가지 요소를 활용한 수업 진행
 - ① 사랑으로 발달하는 뇌(신경 과학 가르치기)
 - 생후 초기에 뇌가 가장 발달, 감정과 건강, 인간관계의 영향을 받음.
 - 부모가 아기에게 공감하면서 세심하게 보살피주면 아기가 자신 있게 세상을 탐색함을 관찰하게 됨.
 - 아기들을 통해 단순한 경험에도 뇌가 복잡한 시냅스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이 뇌를 키운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됨.
 - ② 기질(자기를 이해하기)

- 아이들은 아기의 기질을 관찰하고 자신의 기질에 대해 이야기함.
- 기질에 따라 상황에 다르게 대처하고 정서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공감 능력이 향상

③ 애착(생애 첫 관계 맺기)

- 아이들은 부모와 아기의 애착과 신뢰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서로 맞추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학습
- 아기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의 결과도 이해
- 감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 아이를 잘 기른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됨.

④ 감성 능력(마음의 언어)

-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관리하고 표현하는 능력
- 감성 능력은 안전하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길러짐.
- 아이들은 공감의 뿌리의 모든 과정에서 감성 능력 습득을 위한 단계를 거침.
 - : 아기의 경험과 아기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관찰-> 감정이 이름 붙이기
 - > 토론, 성찰, 미술, 일기 쓰기를 통해 자기의 감정 탐색
 - >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털어 놓기
- 아이들은 아기의 감정을 관찰하면서 언어와 그림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법을 배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신감도 커짐.
- 감성 능력에 공감 능력까지 더해지면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짐. 불의에 대항하고 부당한 행동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됨.

열 살 제시는 어떤 남학생이 다른 아이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채는 장면을 목격했다. 공감 능력이 있으면 놀림당한 아이가 어떤 기분인지 안다. 아이들과 줄지어 서 있던 제시가 앞으로 나오더니 모자를 빼앗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한테 다시 모자를 돌려줘”

⑤ 진실한 대화(마음에서 우러나온 말)

- 진실한 대화는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
- 사회적 능력과 감성 능력, 공감 능력이 자라는 토양
- 진실한 대화는 감성 수준에서 오감.
 - 감정과 의견, 가치관, 신념을 나눌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짐.
- 성인들도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고, 성인이 이미 아는 질문을 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성찰을 자극하고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을 길러주는 질문을 제기해야 함.

⑥ 사회적 포용(모두에게 자리를 내주기)

- 모든 사람은 말을 들어주고 지켜봐주고 소속감을 느낄 대상을 필요로 함.
- 공감의 뿌리는 모두의 목소리와 모든 참여가 다 의미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함.
- 공감의 뿌리는 따돌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행동, 부당한 처사, 잔인한 행동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의를 용납하는 것임을 알려 줌.

- 사회적 포용을 중요한 가치로 삼을 때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아이들이 자
자의 기질을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며 협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
그리하여 아이들은 교실 안에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함.

4. 공감의 뿌리와 사회

1) 아이들

(1) 또래 괴롭힘의 예방과 해결, 자긍심의 고취

- 공감의 뿌리는 포용에 가치를 두는 문화를 조성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
하는 능력을 길러줌.
- 교실 전체를 작은 사회이자 변화의 단위로 보고 방관자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
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메시지 전달
- 사회적 능력, 감성능력, 공감능력을 길러주면 도덕적 책임감이 생기고, 불의에
맞설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느낄 수 있음. 정의실현이라는 동기가 도덕관으로
자리 잡으면 아이들 스스로 괴롭힘을 막을 수 있음.

일곱 살 티모시가 그림을 들고 무슨 그림인지 설명한다.

“애는 내 친구예요.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하니?”

“어떤 애가 내 친구한테 침을 뱉었거든요.”

“그러서 넌 어떻게 했니?”

“침을 닦아주고, 그 애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p.201)

(2) 안전

-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증가
- 아이들은 아기에게 부모가 보호해줘야 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됨.
- 위험 요인: 울음, 수면, 돌아다니기, 알코올과 담배에의 노출
 - 울음: 아이들은 따뜻한 보살핌과 민감하고 세심한 반응이 필요함을 배움.
(아기가 왜 울까? 어떻게 아기의 문제를 해결할까?)
 - 수면: 아기의 일상에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함을 학습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을 책임지는 중한 일이며, 부족한 사람이 부모가 되
면 한 사람의 인생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음을 인식, 십대 임신의 문제 자각
 - 돌아다니기: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안전을 도모해야함을 인식하고 실천
-> 공공의 안전을 바라고, 그것에 이바지하는 건강한 시민이 되는 과정
 - 알코올과 담배: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 이해
- 아기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교육함으로써 부모의 책임과 아기의 취약성을 깨
닫고,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상호 의존이 필요함을 이해
- 아기의 안전문제에서 아이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로 초점이 진행됨.
=> 사회적 압력에 대처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중히 여기게 됨.

2) 교사와 학교

-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 지님.
 -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교육과정보다 더 큰 위력 지님.
- =>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양육활동, 학습은 아이의 감성과 사회적 맥락까지 포함해 아이의 온전한 전체와 연관되어야 함.
- 학교 문화는 사회적 신뢰와 존중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함.
 - 공감의 뿌리 수업은 교사와 학교생활을 변화시킴.
 - : 아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지켜보고 이해, 공감
 - : 학생도 교사에게 공감적 도움 제공 => 함께 배우는 공동체
 - : 아이들의 다양성-관심사, 학습양식, 경험, 이전 생활-존중
 - : 공감의 뿌리에서 연습하는 기술이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됨.
- 사례) 학생의 오답(알 낳는 동물)에 대한 교사의 반응: 아이들의 탐구방식을 이해, 존중하고 열심히 대답하는 아이들에게 공감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 열어줌(pp. 235~237).

3) 부모

-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강력한 관계로서 발달에 큰 영향
 - 부모의 보살핌과 민감한 반응, 대화가 자신감, 공감능력, 사회적 능력에 중요
- 아기를 통해 부모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
 - : 아이의 순수하고 따뜻하고 전폭적인 사랑으로 인해 부모는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
 - : 아이로 인해 부모는 세심한 반응과 이타심을 나타냄.

4) 세상: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

- 공감의 뿌리는 어린 아이들이 공감적인 윤리감과 사회성을 지님을 전제함.
- 갈등, 전쟁, 기아, 환경 파괴,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마음에서 혁명이 필요함.
 - > 아이들과 함께 시작해야 함.
 - 공감은 시민의식, 사회적 행위, 이타주의의 출발점
- 사회는 바람직한 관계 형성과 건강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모든 아이에게 따뜻하고 신뢰로운 세계로 통한 문을 열어 주어야 함.
 - 또한 사회정의를 가르쳐 상호의존과 포용이 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함.
- 공감의 뿌리는 경쟁 사회의 논리에 반기
 - 아무도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지는 못하며, 모두가 제 목소리를 낼 때 모두가 머리와 가슴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가르침.
 - 아이들은... 이성이나 지능만으로 해결되는 갈등은 없으며 머리의 이성과 가슴의 지혜가 모여야 평화를 이루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사실을 교실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배운다. '공감의 뿌리' 아이들은 공감의 기술을 연마한 부모와 시민으로 자랄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씩 바꿀 것이며, 결국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p.265).